

# 조선대 자회사, 납품 갈등 소송전 전망

조선대학교가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와 커피업체가 물품 납품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어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조선대 산하협력단 소속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SU와 A업체가 지난달 말 물품 납품과 관련된 내용증명으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A업체는 CSU와 더치커피(210ml) 원 플러스 원(1+1) 2만개 납품을 구두로 계약하고 지난 8월28일 물량을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A업체는 한 병당 7000원씩 총 7000만원의 물품대금을 CSU에 요구하고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다. CSU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기

## 업체 측 “납품 후 대금 받지 못하고 있다” 주장 조선대 자회사 “공식 계약 체결 없었다” 반박

로 합의했으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서 A업체가 일방적으로 2만개를 배송하고 납품가격도 7000원으로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CSU 측은 “행사를 통해 첫 출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가며 적정 판매가격을 정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근거 자료도 말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했다”며 “유통기한이 3개월인 만큼 행사 후 사용하고 남은

더치커피 1만9700여 개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A업체는 “CSU와 합의하지 않고 물품을 2만개나 납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이미 납품한 제품에는 조선대 로고까지 새겨져 있다”고 반박했다.

A업체 대표는 “조선대 산하협력단 산하 자회사라는 신용을 믿고 구두계약으로 물건을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협력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뒤늦게 가

격이 비싸다고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4월 CSU에 3000만원 상당의 커피제품을 납품한 B업체도 물건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와 B업체는 조만간 CSU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산하협력단 관계자는 “상거래 중 발생한 갈등으로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안다”며 “CSU가 자회사이긴 하지만 조선대가 경영권에 개입할 수는 없는 구조여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규 기자

## 목포 산책로서 50대 여성 흉기에 찔린 채 발견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목포경찰서는 A(52·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B(5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이날 새벽 목포시 옥암동의 천변 산책로에서 A씨의 목과 어깨, 팔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를 흘리며 벤치에 쓰러져 있던 A씨는 주인이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동행했던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았고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벤치 주변에서 수거한 흉기의 지문과 B씨의 지문을 대조할 방침이다.

## 집에서 부탄가스 흡입 뒤 담배 피우다 ‘평’

집에서 이를 동안 부탄 가스 20개를 흡입한 2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다 폭발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부탄 가스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으로 최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에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건물 2층에서 환각물질인 부탄 가스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탄 가스를 흡입한 뒤 2시간 가량 잠을 자고 일어난 최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붙였고, 방 안에 남아 있던 가스로 인해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상무지구 한 빌딩 앞 복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최씨가 가지고 있던 가방에는 부탄 가스 20개가 들어있었고, 모두 비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에게 정신과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병원으로 인계했다.

이홍규 기자

## 14층 높이 타워크레인 전도...5명 사상

10일 오후 1시36분께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용암마을 12단지 신축 및 철거작업을 하던 중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층 높이 타워크레인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 중 3명이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또 다른 근로자 1명은 안전바를 착용해 10층 높이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구조됐다.

그러나 출혈이 심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 화성시 선착장서 실종된 70대 숨진채 발견

10일 오전 7시 50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선착장에서 실종된 70대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서신면 송교리 선착장 부근에서 그물 작업을 하던 이모(72)씨가 실종된지 2시간여 만에 선착장 남서쪽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선착장 부근에서 그물 작업을 하다가 나간 후 보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부근 해상을 수색하던 평택해경 구조대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선착장 남서쪽 약 1.5km 해상에서 이모씨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 “헤어지자” 내연녀 폭행한 초등학교장 구속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폭행한 초등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교제한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남원시 한 초등학교 교장 A(59)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에 이모를 요구하는 B(50)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30분 동안 끌고 다니며 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준정 기자



가을이 찾아온 해인사 길고 긴 추석연휴가 끝난 10일 오후 경남 합천군 해인사 경내에는 오색빛깔 단풍이 물들며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다.

## 광주고법 “홍북학원 임원 6명, 취임 승인 취소 적법”

광주시교육감의 학교법인 홍북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학교법인 홍북학원 전 임원 A 씨 등 6명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송과 관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 12월 홍북학원 산하 학교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지적사항 통보와 함께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감사결과를 토대로 청문을 거쳐 2015년 4월23일 A 씨 등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처분, 회계 운영 부적정, 이사회 운영 부당(이사회 정족수 미달) 등 이었다.

A 씨 등 원고들은 승인취소 사유가 있다고 통보했을 뿐 구체적·개별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승인취소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를 밝히지 않았다. 처분 사유가 불분명하다.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교육감은 2015년 2월9일 원고 별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와 위반 법조를 구체적으로 적어 사전통지했다. 이에 원고들이 시교육감에게 각 처분사유 별 의견을 밝힌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며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진 국가는 당연히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야 하며 그 결과 사립학교에 일정한 규율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공공성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특히 사립

학교의 존립과 운영에 있어 절대적인 요건인 만큼 사립학교 운영자의 자율성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된 처분 사유는 시교육감의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의 처분했다는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운영자인 원고들은 사립학교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설립자의 개인적 채무상환을 위한 것으로 보여 위법행위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결과 홍북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감소로 법적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시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학교운영비가 감액됐으며, 이 같은 불이익은 궁극적으로 산하 학교에 재해 중인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A 씨 등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주준정 기자

## ‘1인 소방관 지역대’ 59곳...33곳 소방서 없어

올해 1월 현재 소방관 1명만 근무하는 1인 지역대가 59곳에 달해 소방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1인 지역대란 소방관 1명만 상주하는 소방관서로 2013년 138개소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아직도 5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31개소가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각각 14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 소방서가 미설치된 지자체 역시 총 33개로 2013년 46개에서 매년 줄어 들고 있지만 감소세를 해를 거듭할수록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 홀로 근무하는 1인 지역대와 소방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은 소방공무원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며 “소방공무원 증원은 비용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증원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스

# 모두, 안녕하세요?

##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진단기 건강검진

영양유 건강검진

암 검진

구강 검진

####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p>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p> <p>건강검진을 받은 사람</p> <p>42%p 감소</p>	<p>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p> <p>건강검진을 받은 사람</p> <p>18%p 감소</p>
사망률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

\*검진받은 건강검진에 참가하지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보건복지부 | 통번역 129 | Incheon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